

프로농구 KCC, 첫번째 시험대

라건아·이대성 영입에도 팀은 1승 2패로 '주춤' 두 선수 몸 상태 좋지 않아 팀 입장에서 '답답'



이대성(사진 왼쪽)과 라건아(사진 오른쪽).

프로농구 전주 KCC가 첫 번째 시험대에 올랐다. 국가대표 라건아와 이대성을 영입하며 단숨에 우승 후보로 부상했지만 '진짜 슈퍼팀'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KCC는 지난 11일 울산 현대모비스와 2대4 트레이드를 실시해 라건아, 이대성을 영입했다. 프로농구 출범 이후 손꼽을 만한 대형 트레이드로 KCC가 목표를 우승으로 향한 조정판 순간이다. KCC는 김국찬, 박지훈, 김세창 등 '미래(신예 선수)'를 포기하는 대신 라건아와 이대성이라는 '현재(우승을 위한 즉시 전력)'를 선택했다.

라건아와 이대성은 현역 국가대표로 현대모비스 전력을 해심이었다.

그러나 첫 술에 배부르지 못했다. 이후 3경기에서 1승2패를 기록했다. 12일 원주 DB전에서 77-81로 패했고, 16일 현대모비스를 잡았지만 17일 서울 삼성에 65-68로 달미를 잡았다.

현대모비스전 경기력도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었다.

전장진 KCC 감독은 현대모비스에 어렵게 승리한 후, "원래 우리 팀은 모두가 많이 움직이는 모션 오픈스를 펼쳤던 팀이다. 그런데 라건아가 오면서 다들 손을 놓고 골밑만 바라보는 상황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정현과 이대성의 공존에 대한 우려도 나타났다. 이정현은 현대모비스전에서 이대성과 동시에 볼 때, 공격을 극도로 아끼는 모습이었다.

이에 대해 전 감독은 "팀의 에이스에게 공격을 자제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겠느냐"며 "(이)정현이가 공격을 아끼는 것에 대해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했다.

이에 반해 현대모비스에 보낸 김국찬은 과감하고 적극적인 공격으로 빠르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 트레이드 초반 희비가 엇갈리는 인상이다. 김국찬은 현대모비스 유니폼을 입고 3경기에서 평균 17점을 올렸다. 경기당 3점슛 2.3개를 쏘았다.

전 감독은 "트레이드 이후 현대모비스의 경기 스타일이 모두가 활발히 움직이던 KCC처럼 변했다"는데 동의하며 "현대모비스 선수들이 많이 움직였다. 서로 스타일이 바뀐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승리했지만) 머리가 많이 복잡하다. 나조차 정리가 잘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하루 뒤 열린 삼성전에서 이정현과 이대성을 따로 기용하는 용병술도 시험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이대성은 2쿼터에 들어와 무더기 턴오버를 범했다.

실상가상으로 라건아마저 쉬운 골밑슛을 놓치는 등 평소와 달랐다. 라건아는 5점, 이대성은 9점(5턴오버)에 그쳤다.

전 감독은 "다시 생각해보야 할 것 같다.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다. 많은 생각을 하겠다. 이 말 외에는 할 말이 없다"고 짧게 말했다.

이대성과 라건아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점도 KCC 입장에서 답답하다. 이대성은 체력 과부하, 라건아는 무릎에 염증이 있다.

한 관계자는 "두 선수 모두 예상하지 못한 트레이드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클 것이다. 라건아는 현대모비스와 풀하게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매우 놀랐고, 좋은 기분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KCC는 23일 안양 KGC인삼공사를 상대한 뒤, 30일 고양 오리온과 대결한다. 9승7패로 4위에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4000여 건각들의 행진

고창고인돌마라톤 성료
폴코스 남자 1위 강동식
여자 1위 이광숙씨 우승



'제17회 고창고인돌마라톤대회'가 전국에서 모인 4000여명의 선수들과 가족 등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첫 수도 고창'에서 17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마라톤 대회는 선사시대부터 마한 시대까지 가장 찬란한 문명을 꽃피운 모로비리국의 고창에서 '농생명문화 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됐다.

마라톤 참가자 중 전남 목포시 차도현(3)군은 최연소 참가자로, 전북 고창 안흥중(83)씨는 최고령자로 건강코스(5km)에 도전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고창고인돌마라톤 동호회에서는 고인돌을 상징하는 원시인 복장으로 볼거리를 제공해 이목을 끌었고, 고창전통시장상인회에서도 50여명의 회원들이 유니폼을 맞춰 입고 참여해 화제를 모았다.

또 70세 이상 참가자 60명은 노인장을 과시했으며, 20인 이상 단체 참가팀도 평택 시마리연합회를 비롯해 대구동구육상연맹 등 21개 단체가 참가해 고창고인돌마라톤대회가 전국규모의 명성을 얻은 대회임을 다시 한 번 확인 시켰다.

이날 폴코스 남자 1위는 강동식(익산시) 선수가 2시간52분15초, 여자 1위는 이광숙(경남 김해)님이 3시간31분41초로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전국의 마라토너들이 출전을 선호하는 고창고인돌 마라톤 대회는 2003년 첫 해부터 푸짐하고 다양한 먹거리로 참가자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올해도 떡국, 막걸리, 두부·김치, 인절미, 돼지고기, 등 푸짐한 먹거리로 쌀쌀한 날씨 속에서 열심히 뛰어 준 선수들에게 고창의 정이 듬뿍 담긴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기상악화로 기념식이 약식으로 치러진 가운데 유기상 고창군수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을 찾아주셔서 감사하며, 모든 마라토너들에게 넉넉한 먹거리와 훈훈한 인심으로 참가자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행명의 부상자도 없이 대회를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올해보다 좋은 성적 거둘 것"

손혁 키움 히어로즈 감독



새롭게 키움 히어로즈 지휘봉을 잡는 손혁(46) 신임 감독이 소통을 중심으로 올 시즌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고 다짐했다. 손 감독은 18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취임식을 갖고 키움의 5대 감독으로 공식 취임했다.

취임식을 마치고 기자회견에 나선 손 감독은 "감독 제의가 왔을 때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라 기분 좋게 수락했다. 처음에 감독 제의를 받았을 때 기분은 좋지만 부담도 되는 자리라 고민했다"며 "코치진과 함께 고민한 다면 코치진, 프런트가 원하는 한 발자국을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올해 정규리그 3위를 차지한 뒤 한국시리즈 준우승까지 차지한 키움은 장정석 전 감독과 재계약하는 대신 손 감독에 지휘봉을

맡겼다. 이 과정에서 구단 경영진의 난맥상이 엿보이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불거졌다. 손 감독으로서 감독 취임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 뿐 아니라 지난해 한국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팀을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을 동시에 느낄 수밖에 없었다.

손 감독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기사를 최대한 보지 않았다. 나는 늘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누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고민하다보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키움에 좋은 기량을 갖춘 선수들이 많다. 그 선수들이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수영 김서영, 올해의 여성체육인 선정

올해 전국체전 유일 5관왕 올라 대회 최우수선수

한국 여자 수영의 간판 김서영(25·경북도청)이 올해를 빛낸 최고 여성체육인으로 선정됐다.

2019 대한민국 여성체육대상 선정위원회는 분야별 수상자를 선정할 가운데 김서영이 최고상인 여성체육대상을 차지했다고 18일 전했다.

김서영은 지난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여자 개인혼영 200m 결승에서 2분08초34로

한국 신기록이자 대회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여자 수영에서 아시안게임 개인혼영 금메달이 나온 건 1982년 뉴델리대회의 최윤희 이후 36년 만이다.

김서영은 100회째를 맞은 올해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유일한 5관왕에 올라 대회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선정위원회는 "김서영이 기존 대상 수상자에



비해 국제경쟁력이 아직 높은 편은 아니지만 미래 발전가능성과 기초 종목 특성을 감안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인상은 '육상 셋별' 양예빈(계룡중)이 받았다. 양예빈은 올해 5월 소년체전에서 3관왕을 차지하며 주목을 받았다. 7월에는 대회 400m에서 55초29로 우승하며 여자 중등부 기록을 29년 만에 갈아치웠다.

지도자상은 김일순 한테니스 아카데미 원장이 선정됐다. /뉴시스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